

천안지역 방과후아동지도시설 실태 및 발전방안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after-school facilities in Cheonan

김선애* · 노혁

나사렛대학교 아동학전공 ·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Kim, Sun-Ae* · Roh, Hyouk

Division of Social Welfare & Child Studies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hildren's after-school facilities in Cheonan, to evaluate their programs, and to further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of those programs. During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facilities in Cheonan are much less in numbers and no better than we expected. Especially, it is shown that most of the study rooms there are evaluated as relatively the worst facilities in terms of space organization, health care and safety, daily schedule and management, and program evaluation proces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at such facilities should be greatly expanded and improved in the program development as well as in the working environment. We also propose to newly establish a regional center which supports and certifies educational programs of each after-school facility.

Key Words : after school, program evaluation process, regional center

I. 서론

지역 사회에서 방치된 아동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다변성과 가족구조의 다양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의 정규 공부이외의 시간을 가정 밖에서 지내야만 하는 취학 아동은 성인의 보호와 감독, 영향권 외의 사각지대에 버려진다. 취학 이전의 시기에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기관이 있다. 아이를 맡길만한 어린이집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방과 후에 그저 길거리에 방치되거나, 사교육 시설을 전전해야만 하고 학교 밖을 배회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빠지기도 하며, 집안에서 아무런 감독자 없이 비교육적인 매체에 노출되기도 한다.

여성특별위원회의(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 아동 중 27.7%가 자기보호 아동에 해당해, 10명 중 약 3명이 빈 집에 들어가 하루에 3-4시간 이상을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는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학습습관 등이 형성되는 중요한 때이면서 이 시기의 아동은 자기 보호 능력의 한계를 갖는 존재이다. 또한 초등교육 시기에 의미 있는 타인의 적절한 감독의 제공을 받지 못할 경우 학습 결손이 초래되고 대인관계의 질이 저하되며, 건전하지 못한 영상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결국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한 우려는 방과 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방과 후 아동지도는 아동이 학교의 정규 공부이외의 시간을 가정 밖에서 지내는 동안 안전한 보호 하에 지낼 수 있도록 연령에 맞는 적절한 활동과 환경을 제공하고 격려와 지원, 지도와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영숙, 1996). 또한 방과 후 아동지도는 학교교육을 보완하

* 본 논문은 2004년도 나사렛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Sun-Ae Kim

Tel: (041)570-7795, Fax: (041)570-1481

E-mail: sakim@kornu.ac.kr

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함으로 학교와 가정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장치로 작용한다(서영숙·박영애·허정경, 2000).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1996)에서 제시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뿐 아니라 편부·편모, 와병 등의 이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모든 부모들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는 데에 있다.

방과 후 아동지도의 활성화는 방과 후(방학중, 학교 시작 전) 시간 동안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함으로써 아동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와 편모·편부의 취업활동을 도우며, 일반가정 부모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방과 후 아동지도를 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 또한 앞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설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설치된 방과 후 아동지도,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지역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 종교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 초등학교의 교실 또는 특별활동을 이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 등과(서영숙·박영애·허정경, 2000) 민간시설 공부방이 있다.

전국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유형별 현황에서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약 87%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실정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방과 후 아동지도 제공을 하는 시설 유형에 따른 상대적 비율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51.2%) > 어린이집(22.7%) > 공부방(21.6%) > 초등학교(4.5%) 순으로 방과 후 아동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어떤 유형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보다 나은 방과 후 서비스를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육환경, 프로그램의 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의 질적 차이에 의해 교육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적절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일은 이후 바람직한 방과 후 아동지도 실시를 위해 보완할 점을 찾아내 줄 수 있으며 방과 후 아동지도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천안 지역의 방과 후 아동지도시설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필요성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전체 여성 인구의 사회참여 및 기혼 여성의 취업률의 증가는 자녀 양육기와 교육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가족 구조 하에서의 자녀 양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 영역이다. 과거와 같이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서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기혼 여성도 경제생산인구에 참여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여성의 노동력은 그 사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 40.0%에서 2000년 48.3%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더 이상 가정의 고유 기능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약화된 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발달과 장치의 지원이 미비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방과 후 시간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지원체제가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은 연령에 따라 M 자 형태를 보인다. 이는 초등학교 교육기 가정의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를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연령별로 구분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에는 경제활동참여율이 높다가, 결혼을 하면서 30-34세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다른 시기에 비해 줄어들고, 자녀출산이 끝나는 35-39세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50대가 지나면서 다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다. 30-34세는 자녀 양육기에 해당하며, 35-39세는 자녀 초등학교 교육기에 해당한다(경제기획원, 1990). 즉, 여성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 자녀 양육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떨어지다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많은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기혼 여성의 약 반수가 취업을 하고 있다. 취업모 자녀의 35-45%가 방과 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3-7시간을 혼자 생활하고, 60% 이상의 아동들이 한 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방과 후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원을 방과 후 보호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다(한순옥, 1996).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방과 후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취학 전 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그나마 자녀 양육기 가족은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의탁할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체제인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며 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가족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대략 1시 30분경이면 학교 정규수업 활동이 끝나고 귀가하게 된다. 어린이집 종일반의 경우 아동의 보호와 교육이 오후 6시 정도까지 이루어진다. 어린이집에 7세 반 아동이 안전하게 6시까지 지낼 수 있었다면, 겨우 한 살 차이인 8세 된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오후 1시 이후로는 성인의 감독과 보호가 없이 방치된다. 7세 아동과 8세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 약 70-80만명 정도의 아동이 취업모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혼자 문을 따고 들어오는 아동은 전체적으로 27.7%에 이른다(김재인, 2000). 이 중 취업모의 자녀는 46.9%이며, 방과 후 혼자 지내거나 형제자매들끼리만 지내는 경우는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지도가 사회 문제화 될 정도로 시급하다.

셋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자기 보호 능력이 완성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전생애 발달 중 근면성을 발달시키며 생활의 틀을 세워야 하는 단계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직 스스로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새롭게 형성되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부모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정서적 지지가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의 형성을 위해 강조되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기보호 능력이 아직 미비한 단계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시기는 성장과 발달이 종료된 단계가 아니다. 이 시기에는 끊임없이 신체적이며 정서적인 변화와 함께 인지적 진보가 이루어진다. 특히 사회적 발달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의 관심과 지지, 격려, 보살핌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가정과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이 초등학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발달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획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정비되어야 하고, 정서적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여 그에 적절한 행동을 하여 또래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야 하며, 불안이나 갈등에 대처하는 적응기제들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주어진 과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발달장애를 나타내는 아동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초등학교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자기보호 아동과 방과 후 아동지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아동들이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부터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보호자가 귀가하기까지 사회적 지원체제를 받을 수 없는 핵가족 형태의 맞벌이 가족의 초등학교 자녀나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비보호 상태에 놓인다. 학교가 끝난 뒤 집에 가도 돌보아 줄 수 있는 성인 없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아동을 자기보호 아동 또는 열쇠 아동이라 한다.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보호 실태를 조사한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초등학교 아동의 약 20-30%가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몇 시간을 지내고 있고, 거의 일주일 내내 혼자 지내는 아동도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영희, 1991; 이옥, 1993; 이재연, 1995). 또한 방과 후 자기 보호 상태로 있는 시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7시간 이상 정도이고, 중류층은 4-5시간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이 옥, 1993). 여성특별위원회(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아동 중 27.7%가 자기보호 아동에 해당한다. 즉, 10명 중 약 3명이 빈 집에 들어가 하루에 3-4 시간 이상을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인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부모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비보호 시간 동안 방임하는 것, 비보호 상태에 놓인 아동에게 자율적 발달, 자기 안전과 성장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조하여 자기 보호 능력을 기르는 것, 비보호 상태에 놓인 아동의 발달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공해 주는 것 등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이소희·박인전·도미향·김민정, 2001). 첫 번째의 선택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자녀를 유기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대안책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여 방지해야 한다. 두 번째의 선택 또한 아동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자녀에게 너무 과다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역시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와 가족 지원의 차원에 가치를 두어 마지막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자기보호 아동들은 방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이소희·박인자·도미향·김민정, 2001; 정민자·박초아·이진숙, 1997), ①의 상태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보호 아동은 방과후 주로 놀이터에서 놀거나, 숙제를 하고, TV를 보며, 과외수업을 받거나 각종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이재연·강성희, 1995; 정연희·최경순, 1996), 이 또한 최선의 대안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핵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에게서 부모의 경제 활동을 통해 가족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생존을 위해 산업현장에 나가 일을 해야만 하는 부모와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에도 사회적 관계망의 증가로 인해 부모가 집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기 보호 아동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방과 후 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서비스 마련은 모든 계층의 가정에게 필요하다.

방과 후 아동지도 서비스는 초등학교 교육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규교육 기관에서의 일과 이외의 시간, 즉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학교 시작 전, 휴일, 방학중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 복지 서비스이다(김재인, 1996; 노성향·정옥분, 2002; 서영숙·박영애·허정경, 2000; 이옥·노성향, 1996). 아동이 부모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 최소 2시간 정도를 혼자 있게 되는 자기보호 아동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교통사고나 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증가하며,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며, 학습의 결손, 불안감, 외로움, 낮은 자아 유능감 등을 겪는다(Dichtel, 1986; Halpern, 1990; Hudley, 1999). 따라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도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다.

우리나라의 방과 후 아동지도는 1970년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된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지역사회 공부방이 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관심과 본격적인 연구는 국내외 모두 그 역사가 그리 길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는 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방과 후 아동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서울 하월곡동에서 '산돌 공부방'을 시작하여 1989년 서울 지역 공부방 연합회가 발족되면서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그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을 필요시 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와 맞맞추어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십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중 단기과제의 하나로 '방과 후 아동지도제도 도입'을 선정하게 되어 방과 후 아동지도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1996년 1월을 기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보육 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이 영유아에서 12세까지의 아동으로 연장 조치되어 방과 후 아동지도가 공식적인 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1999년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3개년 계획을 마련하면서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을 현재 84개소에서 2002년까지 200개소로 늘이는 계획을 발표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서영숙·박영애·허정경, 2000).

우리나라의 방과 후 아동지도 제도는 단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보였다. 이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의 방과 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1993-1994)과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시범운영(1995),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개발(1997, 삼성복지재단 후원), 보건복지부에서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1996), 여성특별위원회와 한국여성개발원의 방과 후 아동보육실태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2000),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의 다양한 연구결과 등(노성향·정옥분, 2002; 이경선, 2000; 이영자·이종숙·이옥·신은수·이정옥, 1999; 이재연·강성희, 1995; 정연희·최경순, 1986; 허정경, 1999)이 종합되어 이룩된 성과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방과후 아동지도가 제도권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는 다음과 같은 관련법에 근거한다.

처음 방과 후 아동지도는 아동 보육의 대상 연령에 근거하여 영유아보육법(12세까지), 아동보육법(18세까지), 청소년육성법(24세까지) 등이 고려되었고, 복지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의 강조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교육법, 사회교육법 등이 근거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의 경우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설령 유사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요구되는 어려움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방과 후 아동지도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한다. 2003년 12월 재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방과 후 아동지도에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신설되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법제화되었다(아동복

지법 제 16조 11항 참조).

3. 방과 후 아동지도 수요와 방과 후 아동지도시설 현황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4,138,366(여자 : 1,942,874)명이다(교육통계연보, 2002). 김재인(2000)의 연구를 보면 2000년 현재 초등학교 아동은 총 4,336,252(교육통계연보, 2000)명이고, 학령기 아동 중 취업모를 가진 6-17세 아동은 1,488,580명이다(통계청, 1995). 이들 중에 6-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아동 수 산정을 취학연령인 구수비로 산출하면 초등학교 교육기 아동인 6~12세 아동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중 약 70~80만 명 정도의 아동이 취업모를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0년도와 2002년도 현재의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200,000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간단한 수치 대비를 통해 현재 취업모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 수를 추정하면 약 67만에서 76만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한국여성개발원(2000)에서 실시한 방과 후 아동보육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대상 초등학교 학부모 중 응답자의 32.3%가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모의 경우에는 방과 후 아동보육 희망율이 조금 더 높은 38.6%에 이르고,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27.3%의 응답자들이 방과 후 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2000년 현재 총 아동 수를 대비하면 약 1,298,000명의 아동의 부모가 방과 후 아동보육을 원하며, 취업모의 경우 754,000명, 비취업모의 경우 564,000명이 방과 후 아동보육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과 후 아동지도도를 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 또한 앞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시설은 유아교육기관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설치된 방과 후 아동지도,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지역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 종교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 초등학교의 교실 또는 특별활

동을 이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서영숙·박영애·허정경, 2000).

방과 후 아동지도는 2000년 10월 현재 전국에 53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방과 후 아동지도도를 제공하는 시설의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전국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유형별 현황에서 설치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약 87%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실정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방과 후 아동지도도를 제공하는 시설 유형에 따른 상대적 비율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51.2%) > 어린이집(22.7%) > 공부방(21.6%) > 초등학교(4.5%) 순으로 방과 후 아동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 설치 장소별 유형에 따라 방과 후 아동지도는 그 목적과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방과 후 아동지도는 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 자기 보호 아동 또는 생활보호 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리지도, 원만한 성격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국공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의 방과 후 아동지도는 기존 보육시설의 경우 1개 반을 방과후 아동에게 개방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는 주로 아동 중심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보육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초등학교 취학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취학 이후에도 보호와 교육을 받는다는 친숙함을 장점으로 한다.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99운영 결과 및 2000년 운영 계획'을 통해 교육부(1999)는 초등학교의 각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 후 아동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부족한 학습보완 위주의 방과 후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공부방은 주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간단체, 종교단체, 사회운동단체들이 설립

<표 1> 전국 방과 후 아동교실 현황

구분	전체수	설치수(%)	시설유형별 비율(%)
종합사회복지관	315	273(86.67)	273(51.2)
어린이집	15,375	121(.79)	121(22.7)
초등학교	5,543	24(.43)	24(4.5)
공부방	115	115(100)	115(21.6)
계	21,348	533(2.50)	533(100)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2000).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은 학습을 위주로 하는 학습지도 중심형이며, 프로그램을 특별활동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특별활동 중심형, 자기보호 기술이 부족한 초등학교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숙제지도를 통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보육활동 중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방과후 아동지도 연구회 : afterschool.or.kr). 2003년도의 아동복지법 재개정 이후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민간 영역의 공부방 활동이 지역아동센터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종합서비스이다.

그간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한국아동학회의 방과후아동지도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는 주로 여성개발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분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별 프로그램의 성격과 질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천안 지역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청에 등록된 자료와 충남보육정보센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실태 파악을 위해서 천안 지역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85.7%를 차지하였으며, 만 36-39세가 57.1%로 높았고, 학력은 전문대 중퇴 이상이며, 근무경력이 2-3년 이상인 응답자가 대부분이며, 이 중 시설장이 4명, 교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을 갖고 있었다. 신학 관련, 아동학(유아교육) 관련, 교육학, 물리치료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계없이 일반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방과 후 아동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는 대부분 2년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근무 경력과 시설근무년수는 동일하게 나타나, 현재 시설이 첫 근무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은 %

		어린이집	공부방	사회복지관	총계
시설구분		4(57.1)	2(28.6)	1(14.3)	7(100)
성별	남	0(0)	1(50)	0(0)	1(14.3)
	여	4(100)	1(50)	1(100)	6(85.7)
연령	만 20-24세	1(25)	0(0)	0(0)	1(14.3)
	만 30-35세	1(25)	0(0)	0(0)	1(14.3)
	만 36-39세	2(50)	1(50)	1(50)	4(57.1)
	만 45-49세	0(0)	1(50)	0(0)	1(14.3)
학력	전문대 중퇴·졸업	3(75)	0(0)	0(0)	3(42.9)
	대학교 중퇴·졸업	1(25)	1(50)	1(100)	3(42.9)
	대학원 졸업	0(0)	1(50)	0(0)	1(14.3)
수입	60-69만원	0(0)	0(0)	1(100)	1(14.3)
	80-89만원	1(25)	0(0)	0(0)	1(14.3)
	100-109만원	0(0)	1(50)	0(0)	1(14.3)
	110-119만원	1(25)	0(0)	0(0)	1(14.3)
	120-129만원	1(25)	0(0)	0(0)	1(14.3)
	150-159만원	1(25)	0(0)	0(0)	1(14.3)
	160만원 이상	0(0)	1(50)	0(0)	1(14.3)
전공	교육학	0(0)	0(0)	1(100)	1(14.3)
	기독교교육학	0(0)	1(50)	0(0)	1(14.3)
	물리치료	1(25)	0(0)	0(0)	1(14.3)
	신학목회학	0(0)	1(50)	0(0)	1(14.3)
	아동복지	1(25)	0(0)	0(0)	1(14.3)
	유아교육	2(50)	0(0)	0(0)	2(28.6)
직책	교사	1(25)	0(0)	0(0)	1(14.3)
	시설장	2(50)	2(100)	0(0)	4(57.1)
	물리치료사	0(0)	0(0)	1(100)	1(14.3)
	기타	1(25)	0(0)	0(0)	1(14.3)
자격종류	보육교사(양성과정)	1(25)	0(0)	0(0)	1(14.3)
	전문대유치원	2(50)	0(0)	0(0)	2(28.6)
	사회복지사	1(25)	1(50)	0(0)	2(28.6)
	대학졸업	0(0)	0(0)	1(100)	1(14.3)
	대학원졸업	0(0)	1(50)	0(0)	1(14.3)
교사근무경력	2-3년	2(50)	0(0)	0(0)	2(28.6)
	4-5년	0(0)	1(50)	0(0)	1(14.3)
	6-7년	0(0)	1(50)	1(0)	2(28.6)
	8년 이상	2(50)	0(0)	0(0)	3(42.9)
시설근무경력	2-3년	2(50)	0(0)	0(0)	2(28.6)
	4-5년	0(0)	1(50)	0(0)	1(14.3)
	6-7년	0(0)	1(50)	1(100)	2(28.6)
	8년 이상	2(50)	0(0)	0(0)	2(28.6)

2. 연구도구

방과 후 아동지도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② 시설 설비 현황, ③ 시설 운영 현황, ④ 시설 프로그램 평가(공간구성/영양·건강·안전/일과 계획 및 운영관리/프로그램 영역) 총 네 영역의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을 비롯하여 자격증, 교사 근무경력 등을 포함시켰고, 시설 설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의 위치, 소유권 형태, 건물 평대, 면적, 부대시설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설 운영 현황에는 운영기간, 운영시간, 아동 현황, 교사 대 아동 비율, 종사자 현황, 일일 근무시간, 운영비 등을 질문하였다. 시설 프로그램 평가 척도는 김영옥, 이기룡, 이민표(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서영숙, 권영래, 박영애(2000)가 SACERS(Harms, Jacobs, White, 1997)를 번안, 수정하여 제작한 방과 후 아동지도 교육환경 평가 척도, 이은혜, 이기숙(1996)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시설 프로그램 평가 척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질문에 동의 하는 것으로 평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시청과 충남보육정보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자료는 2004년 6월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조사하였으며, 7월 3일에서 10일까지에는 방과 후 아동 지도 시설의 현재 운영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로 등록된 기관 중 보육시설 네 기관이 현재 방과 후 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전화로 시설의 협조를 의뢰하는 작업을 거쳤다. 천안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7월 12부터 15일 기간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이 후 8월 13일까지 설문지를 회수하는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회수 기간 중에도 전화와 Fax를 이용하여 협조를 누차 부탁하였으며, 시설을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천안 지역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열악성과 기타 이유로 말미암아 설문 문항에 응답할 만큼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설문지 회수율은 47%에 머물렀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하나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현황

천안 지역에는 2004년 현재 17곳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이 있으며, 그 중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이 8곳, 공부방 형태의 시설이 7곳,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방과 후 아동지도가 2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나마 20여 곳에 달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도 위탁아동의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매년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시하는 곳으로 보고 된 곳은 없었다.

<표 3> 천안 지역 소재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현황 ()은 %

구분	설치수 (%)
어린이집	8(47)
공부방	7(41)
사회복지관	2(12)
초등학교	0(0)
합계	17(100)

앞서 제시한 방과 후 아동지도 수요에 대비해 볼 때, 천안시 초등학교 수 44,166명이므로(교육통계연보, 2002), 7100~8100명 가량의 아동이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0)의 초등학교 학부모 중 응답자의 32.3%가, 이 중 취업모의 경우에는 38.6%가 자녀의 방과 후 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 시킨다면, 천안시의 3000여명의 초등학교 학부모가 방과 후 보육 희망할 수 있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난다.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잠정적 수요도가 현실화 될 것을 가정할 때 천안시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2.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설비 현황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은 아파트지역의 상가 내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월세임대나 자가의 소유권형태로 이

<표 4> 천안 지역 소재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설비 현황

()은 %

		어린이집(N=4)	공부방(N=2)	사회복지관(N=1)	총계(N=7)
시설위치	단독주택지역	2(50)	0(0)	0(0)	2(28.6)
	아파트지역	0(0)	2(100)	1(100)	3(42.9)
	상가지역	2(50)	0(0)	0(0)	2(28.6)
소유권형태	자가	1(25.0)	1(50)	0(0)	2(28.6)
	전세임대	0(0)	0(0)	1(100)	1(14.3)
	월세임대	3(75.0)	0(0)	0(0)	3(42.9)
	기타	0(0)	1(50)	0(0)	1(14.3)
건물형태	단독건물	1(25.3)	1(50)	0(0)	2(28.6)
	상가내건물	3(75.0)	0(0)	1(100)	4(57.1)
	종교부지	0(0)	1(50)	0(0)	1(14.3)
면적 (부대시설포함)	10-14평	0(0)	1(50)	0(0)	1(14.3)
	25-29평	0(0)	0(0)	1(100)	1(14.3)
	30-34평	1(25.0)	0(0)	0(0)	1(14.3)
	40-44평	0(0)	1(50)	0(0)	1(14.3)
	55-59평	1(25.0)	0(0)	0(0)	1(14.3)
	60-64평	1(25.0)	0(0)	0(0)	1(14.3)
	80평 이상	1(25.0)	0(0)	0(0)	1(14.3)
교실 수	한 개	2(50)	1(50)	0(0)	3(42.9)
	두 개	2(50)	1(50)	1(25)	4(57.1)
부대시설	사무실	2(14.2)	1(33.3)	0(0)	4(19)
	조리실	2(14.2)	1(33.3)	1(25)	3(14.2)
	세면실	3(21.4)	1(33.3)	1(25)	5(23.8)
	전용화장실	3(21.4)	0(0)	0(0)	4(19)
	교재교구실	1(7.1)	0(0)	1(25)	1(4.7)
	휴게실	1(7.1)	0(0)	0(0)	1(4.7)
	실외놀이터	1(7.1)	0(0)	0(0)	2(9.5)
	기타	1(7.1)	0(0)	0(0)	1(4.7)

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면적은 10-14평에서부터 80평 이상까지 그 규모가 일정하지 않았다. 공부방과 사회복지관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실 수가 한 개였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한 개 혹은 두 개로 나타났다.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부대시설도 어린이집은 사무실, 조리실, 세면실, 전용화장실, 교재교구실, 휴게실, 실외놀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부방과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아동의 신체 발달을 위한 부대시설이나 교사와 아동을 위한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설비 현황을 놓고 볼 때에는 현재 방과 후 아동지도 실시하고 있는 시설 중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운영 현황

천안 지역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은 운영기간이 1-3년 인 경우가 4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아동지

도 시설은 주 5회, 하루 5시간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운영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 가족의 자녀를 위탁받았을 경우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연장 보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일 교사근무 시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공부방과 사회복지관 교사의 근무시간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급 수는 한 두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공부방의 경우 세 학급이 되는 곳도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은 공부방이 제일 높아 교사 1인 대 15-19명의 아동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현황은 시설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어린이집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고, 공부방은 중학생의 비율이 높다.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교육비, 시청의 후원금, 개인후원금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천안 지역 소재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운영 현황

()은 %

		어린이집(N=4)	공부방(N=2)	사회복지관(N=1)	총계(N=7)
운영기간	1-3년	2(50)	1(50)	0(0)	3(42.9)
	4-6년	1(25)	1(50)	0(0)	2(28.6)
	7-9년	1(25)	0(0)	0(0)	1(14.3)
	10년 이상	0(0)	0(0)	1(100)	1(14.3)
시설이용횟수	주 5회	4(100)	1(100)	1(100)	6(100)
시설이용시간	하루 3시간	1(33.3)	0(0)	0(0)	1(20)
	하루 5시간	1(33.3)	1(100)	1(100)	3(60)
	하루 8시간	1(33.3)	0(0)	0(0)	1(20)
학급수	한 학급	2(66.7)	1(50.0)	0(0)	3(50.0)
	두 학급	1(33.3)	0(0)	1(100)	2(33.3)
	세 학급	0(0)	1(50.0)	0(0)	1(16.7)
교사대 아동비율	5명 미만	2(50)	0(0)	0(0)	2(33.3)
	5-9명	0(0)	0(0)	1(100)	1(16.7)
	10-14명	2(50)	0(0)	0(0)	2(33.3)
	15-19명	0(0)	1(100)	0(0)	1(16.7)
아동현황	초1-3학년	29(60.4)	21(30.4)	20(100)	70(51.1)
	초4-6학년	10(20.8)	9(13.0)	0(0)	19(13.9)
	중학생	9(18.7)	33(47.8)	0(0)	42(30.7)
	고등학생	0(0)	6(8.7)	0(0)	6(4.4)
	총합	48(35.0)	69(50.3)	0(0)	137(100)
일일 교사근무시간	6-7시간	0(0)	0(0)	1(100)	1(14.3)
	8-9시간	1(25)	2(100)	0(0)	3(42.9)
	10-11시간	2(50)	0(0)	0(0)	2(28.6)
	12시간 이상	1(25)	0(0)	0(0)	1(14.3)
운영비출처	시설부담	1(14.3)	1(11.1)	0(0)	1(5.9)
	교육비	2(28.6)	2(22.2)	1(50)	5(29.4)
	시(구)청 후원	2(28.6)	2(22.2)	0(0)	4(23.5)
	종교단체 후원	0(0)	2(22.2)	0(0)	2(11.8)
	개인후원	1(14.3)	2(22.2)	0(0)	3(17.6)
	기타	1(14.3)	0(0)	1(50)	2(11.8)

4.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프로그램 평가

시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서 공간, 영양·건강·안전, 일과계획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의 네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영양·건강·안전 영역은 다시 영역과 건강과 안전 세 영역으로 세분화되며, 일과 계획 및 운영관리 영역도 일과계획과 운영관리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총 7영역에 대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영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로 문항에 응답하게 구성되었으며, 점수는 각각 1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천안 지역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은 시설 자체의 불안정성과 열악성 등으로 인하여 각 영역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본 연구의 질문에 응답하기를 거절하거나 어려움을 표명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다음 표는 각각의 평가 영역에 대한 평균점수이다.

전체 영역을 놓고 비교할 때 네 가지 영역 중 영양·건강·안전 영역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영양 영역의 평균은 4.33으로 '대체로 그렇다'와

<표 6> 천안 지역 소재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프로그램 비교

시설구분	공간 구성	영양·건강·안전			일과계획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영양	건강	안전	일과 계획	운영 관리	
어린이집	3.48	4.41	4.02	4.13	3.93	4.17	4.12
공부방	1.21	3.83	3.11	3.09	3.50	3.23	3.13
사회복지관	2.84	5.00	4.00	4.09	4.75	4.11	3.94
합계	3	4.33	3.76	3.82	3.92	3.89	3.76

‘정말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경우 아동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과계획 및 운영관리 영역이 높은 점수를 얻었고, 상대적으로 공간구성이 취약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구성의 경우에는 ‘아동 수에 비해 충분한 실내 공간이다’ ‘아동이 사용하는 교구 정리장과 개인 사물함, 책상 있다’ 등이 질문되었다. 어린이집은 공간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었고, 공부방이 1.21로 ‘거의 그렇지 않다’에 근접한 점수를 얻어 공간의 열악성 문제를 보여준다.

음식과 주방기구의 보관 상태, 청소와 환기 상태, 상해보험 가입 상태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 영양·건강·안전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시설별로 보면 공부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일과 계획 및 운영관리 영역은 일과 계획의 경우 기관의 교육철학과 교육목적 반영여부, 교육계획안의 구체성 등으로 평가하였고, 운영관리는 아동에 관한 기록과 문서보관, 비품 및 설비 대장 보관, 교사의 임용과 해임의 관계 법규 준수 등의 항목을 질문하여 평가하였다. 일과 계획은 사회복지관이, 운영관리는 어린이집이 평균 ‘대체로 그렇다’ 정도의 점수를 획득했고, 공부방은 이 영역에서도 낮은 평가를 보고하였다.

프로그램 영역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개별활동’ ‘토론할 수 있는 시간’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공부방은 ‘그저 그렇다’ 수준의 응답을 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어린이집, 공부방, 사회복지관 시설에서 행해지는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은 공간구성, 영양·건강·안전, 일과계획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영역에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공부방은 공간구성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영역에서도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방과 후 아동지도가 시설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른 목적과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방과 후 아동지도에서는 학습지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어린이집에 방과 후 아동지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숙제지도, 학습지도, 예체능활동, 특별프로그램, 안전보호의 중요도의 편차가 크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안전보호와 학습지도를 중요한 부문으로 꼽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숙제지도와 예체능활동은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숙제지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했고, 이를 제외한 학습지도, 예체능활동, 특별프로그램, 안전보호에는 높은 긍정을 나타냈다. 공부방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에 방과 후 아동지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숙제지도와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발전방안

본 연구 결과, 천안 지역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은 총 17곳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잠정적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된 시설도 운영의 안정성이 없으며 환경적으로 극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천안 지역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은 어린이집, 공부방, 사회복지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방과 후 아동지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전국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직영 또는 부설 방과 후 아동시설이 전체의 51.2%,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22.7%, 공부방 형태가 21.6%,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가 4.5%인 것과는 다른 분포도이다(김재인 외, 2000).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행해지는 방과 후 아동지도가 일반적으로 취업모들이 자녀를 위해 방과 후 시설로 가장 선호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등학교의 방과 후 아동지도가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옥, 1996). 본 연구에서도 천안 지역에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육시설로 번거롭게 이동하는 문제가 해결되어 안전한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지도를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비스 자체가 제한적이며, 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교의 방과 후 아동지도 교육환경을 비교한 연구(서영숙·박영애·허정경, 2000) 결과, 보육시설

<표 7> 천안 지역 소재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별 프로그램 중점사항 비교

시설구분	숙제 지도	학습 지도	예체능 활동	특별 프로그램	안전 보호
어린이집	2.33	4.0	2.33	3.0	4.0
공부방	4.0	4.0	3.5	3.0	3.0
사회복지관	3.0	5.0	4.0	4.0	5.0
합계	3.0	4.17	3.0	3.17	3.83

이 가장 우수한 교육환경을, 초등학교가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이 가장 질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은 이유는 다른 시설에 비해 아동이 즐길 수 있는 공간구성을 잘 갖추고 있으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의 보완기능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천안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설 설비의 경우 어린이집 시설이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아동지도를 어린이집 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운영 시간이 가장 길며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아동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공부방은 중학생의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프로그램 평가 결과 공부방이 상대적으로 각 영역(공간구성, 영양·건강·안전, 일과 계획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시설 별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면, 어린이집은 학습지도와 안전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은 학습지도, 안전보호, 예체능활동, 다양한 특별프로그램 등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안 지역의 공부방은 숙제지도와 학습지도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천안 지역의 공부방은 학습지도 중심형 공부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학교는 지식의 공급처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다.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무한에 가까운 지식을 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의 존재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성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제도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형태가 생기는 한편, 점차 평생교육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며 나아가 사회로 '열려 있는 교육' 형태를 주문하기도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부모와의 관계보다 다양한 매체에 영향을 받고 이전의 아동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심리 정서적으로 독립성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쌍방향 관계역량을 키워주며, 안정된 삶과 미래를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제도교육이외에 많은 접근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방과 후 아동지도는 본래 기능으로 강조되어 왔던 공교육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방치된 상황을 예방하고 빈곤 및 결손 가정의 아동에게 학습보충과 친사회적 관계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에서 변화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방과 후 아동지

도가 단순히 학교교육의 보완의 수준을 넘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아동에 대한 공적인 사회보호와 지원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동의 보호와 지원의 측면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의 역할은 물론, 아동의 미래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학습하는 기능도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향 후 방과 후 아동지도는 크게 세 가지 수준의 기본 발전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방과 후 아동지도의 문자적 의미에 상응하는 공교육체계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제도교육 외의 시간에 아동기에 적합한 생활과 취미 및 특기활동 등을 지도하는 일이며, 나머지 하나는 아동들에게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 및 사회접촉의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잠재적 역량을 자유롭게 일깨우도록 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기준 마련과 함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천안 지역의 경우 방과 후 아동지도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방과 후 아동지도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상당부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명목적인 방과 후 아동지도시설의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로 수용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은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다양한 시설에 적용하기 보다는 빈곤지역 등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를 중점 프로그램으로 하고 방과 후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들 시설이 일시적인 보호처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현행 다양한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공간구성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관과 더불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 후 아동지도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공부방은 그 대상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약한 시설과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천안 지역의 공부방은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실태 파악과 평가를 위한 연구에 협조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하에 있으므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벗어나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질 높은 방과 후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자원 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과 후 아동지도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부방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학령기 아동의 인지와 학습결손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자기관리 기술이 부족한 아동에게 숙제지도를 실시하여 아동의 공교육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들 시설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은 각각의 강점을 교환하여 체계적인 방과 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체계화가 요구되지만, 이와 동시에 방과 후 아동지도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지원해 주는 지역별 관련 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와 지원 소홀은 방과 후 아동지도의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각 시설의 프로그램 인증을 전담할 지역별 관련 센터의 설치의 실패 파악조차 힘든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낙후성을 탈피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이다.

넷째, 방과 후 아동지도는 초등학교 등의 교과과정에 편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 영상, 인권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아동들이 겪게 될 미래 사회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교육 실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이제 방과 후 아동지도는 단순한 학습지도와 아동의 안전보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보상교육 차원에서의 방과 후 아동지도에서 일 진보하여 아동에게 미래 사회의 주체적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기능 중 자녀 양육과 교육기능의 사회적 이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만큼이나 방과 후 아동지도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각 시설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천안 지역은 수적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현격히 부족한 형편이나, 보육시설인 민간 어린이집 시설은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가 가장 질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1999년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3개년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을 현재 84개소에서 2002년까지 200개소로 늘이는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였다. 천안시에서도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방과 후 아동지도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면, 천안 지역의 방과 후 아동지도에 대한 잠정적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천안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활성화를 피하여 민간형태 공부방의 유기적인 협력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천안 지역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천안 지역의 경우 방과 후 아동지도시설이 적고 보다 정확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설의 협조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설의 열악성으로 인해 협조에 응하지 않는 시설이 많았으며 프로그램 평가 항목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설도 있었다. 그만큼 천안 지역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다. 각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과 교사와의 심층적인 면접을 병행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다.

셋째, 표본의 수가 적다 보니 기술적인 통계 분석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설별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시설 유형별로 각각의 특성을 도출해가야 용이하여 방과 후 아동지도의 발전방안 제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아동지도를 실시하는 주체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과 전국 규모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제어 :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시설설비현황, 시설 운영현황, 시설프로그램평가, 발전방안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교육부(1999). 특기·적성 교육활동 '99운영 결과 및 2000년 운영 계획.
 교육부(2002). 교육통계연보.
 고진영·이경화(2001). 방과후 아동지도론. 서울: 학문사.

- 김영옥 · 이기룡 · 이민표(1999). 아동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6, 249-285.
- 김재인(1996).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자료, 한국여성개발원.
- _____(2000). 방과후 아동보육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 노성향 · 정옥분(2002). 방과후 아동지도의 질적 수준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217-231.
- 방과후 아동지도 연구회 afterschho.or.kr, 제 1차 방과후 아동지도 워크샵 자료.
- 서영숙(1996).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육기관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아동연구*, 10권, 153-214,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 서영숙 · 박영애 · 허정경(2000).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유형별 교육환경 비교. *아동학회지*, 21(1), 141-161.
- 여성특별위원회(2000).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이경선(2000).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희(2001). *한국아동보육론*.
- 이소희 · 박인전 · 도미향 · 김민정(2001). 방과후 아동지도. 서울: 양지.
- 이영자 · 이종숙 · 이옥 · 신은수 · 이정옥(1999).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혼합연령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서지능 발달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3-24.
- 이옥(1993). 도시지역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양옥승(편), *탁아연구*, 2, 7-32. 서울: 양서원.
- _____(1996).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 이옥 · 노성향(1996). 방과후 아동보육론. 서울: 창지사.
- 이은혜 · 이기숙(1996).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 교사를 위한 활용 지침서-. 서울 : 창지사.
- 이재연(1995).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개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이재연 · 강성희(1995).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안전실태 및 자기보호에 대한 준비도. *숙명여대 아동연구* 8 · 9, 25-50.
- 정민자 · 박초아 · 이진숙(1996). 방과후 아동지도. 서울: 양서원.
- 정현희 · 최경순(1996).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활조사-중류층 취업모 아동과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2), 370-390.
- 통계청(1995).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통계조사.
- _____(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 한국여성개발원(1994).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한국여성개발원(1995). 방과후 아동지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한국여성개발원(1996).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
- 한국여성개발원(1997).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 한영희(199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실태 조사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한순옥(1996).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탁아서비스 도입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263-280.
- 허정경(1999). 시설유형별 방과후 아동지도 환경 비교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Dichtel, J.M.(1986). *The primary latchkey child: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Halpern, R.(1992). The role of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lives of inner city children: A study of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Hudley(1999). Problem Behaviors in Middle Childhood Understanding Risk Status and Protective Factors. *April Annual Meeting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9-23.

(2004. 08. 30 접수; 2004. 10. 01 채택)